

해남 겨울배추 ‘밭떼기 거래’ 살아났다

시장격리 선제적 대응 효과

정부 발표 이후 40% 늘어

한달내 전체면적 90% 처리

상인의 발길이 뚝 끊긴 해남 겨울배추밭에 이달 중순 이후 포전 거래(밭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1월초 포전 거래가 전체면적 대비 30%선(826ha)에 그치던

것이 정부의 시장격리 발표로 40%(1000ha 정도)의 추가적인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체면적의 70%가 판매되는 등 농업인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배추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12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 “포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격리시기를 2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게 중요하다”고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격리 물량 542ha 중 농협에

서 처리할 물량은 271ha였으나,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총 478ha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본격 출하시기인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시장격리와 포전거래를 포함해 재배면적의 90% 정도인 2500ha가 산지 폐기되거나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남지역 겨울배추 재배면적 2754ha 가운데 나머지 254ha는 시장격리나 포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돌아가는 어려움도 남은 과제다.

또한 여전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거래 가격으로 배추농가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포전은 3000원선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격리 가격은 정부의 최저가격 고시에 따라 3.3㎡당 계약농가 3100원과 비계약농가 2500원을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배추를 시장격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수급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전 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 고구마 소주 ‘주랑계’ 출시

송우종명가, 고구마 막걸리·식초 이어 개발



해남 자색 고구마의 붉은 빛을 담은 소주가 출시됐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송우종명가(대표 송우종)에서 ‘자색고구마 막걸리’에 이어 최근 ‘고구마 소주’를 만들어 냈다.

쌀 60%에 자색고구마 40%를 섞어 전통 증류방식으로 만든 고구마 소주 ‘주랑계’는 일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허겁에 감도는 향이 남다르다. ‘주랑계’ 알코올 도수는 19.5도로, 통상 유통되는 일반소주 16~19도보다 다소 높지만 쌀과 고구마로 만들어 숙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백미를 고두밥으로 만들어 한 달간 발효 후 증류시킨 70~80도의 술에 정제

수를 섞어 알코올 도수를 맞춘다. 소비자가는 360㎖ 1병에 3500원이다.

송 대표는 해남고구마를 원료로 한 제품 만들기에 몰두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고구마 막걸리’를 만들어 막걸리는 으레 흰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깬으며, ‘고구마 식초’와 ‘고구마 식초음료’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송우종 대표는 “쌀과 고구마처럼 해남 대표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해 지역 농업과 상생발전을 이뤘나하겠다”면서 “앞으로 ‘주랑계’가 안동 소주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내 주조장과 제조방법을 공유하고 기술 등도 이전에 나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주작산·금강산 등산로 정비

주민의견 수렴 데크 설치·안내판 교체 등 나서

해남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등산로 정비에 나섰다.

해남군은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2억6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작산 4.5km 구간과 금강산에서 만대산에 이르는 27.5km 구간을 정비한다. 주작산 위험구간에는 안전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금강산과 만대산 구간에는 종합 안내판과 방향표지판을 정비한다. 이후 연차적으로 남마산과 주작산, 가학산에 대한 종합 안내판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등산로 정비에 앞서 군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조사에 나섰다. 특히 해남군 등산연합회 등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등산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산림담당 공무원 2명씩 3개조로 조사단을 구성해 1월 한 달간 등산에 나선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 정취했다. 또한 등산

로 거리 측정과 함께 등산로 훼손 정도,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훼손 복원 대상과 등산로 현황에 없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규 등산로도 정리 조사했다. 군은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일 해남군 등산연합회와 해남군 병영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작산 로프설치 구간을 데크로 교체해 설치해 줄 것 ▲해남군민의 이용율이 높은 금강산을 우선으로 안내판을 정비할 것 ▲등산로 풀베기와 금강산 탈출로 개설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힐링 문화의 하나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등산로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등산관계자 등 주민 의견을 정취해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로타리클럽 저소득 노인 기저귀 전달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 로타리 3610지구 진도클럽(회장 한덕을)은 지난 24일 경제적 부담이 많은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해 성인용 기저귀를 전달했다.

회원들은 실시일만으로도 이웃사랑 성금 400만원을 마련해 성인용 기저귀 100여 세트를 구입해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위로했다.

성인용 기저귀는 재가 저소득층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덕을 회장은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로타리 3610지구 진도클럽은 바다 대정소를 비롯해 독거노인 집수리,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민들이 최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진도 환경 클린운동’ 발대식을 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주민 참여로 깨끗한 진도 만든다

‘환경 클린운동’ 발대…매주 내집앞 내점포앞 청소

진도군이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도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진도군은 지난 23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군민과 기관, 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환경 클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의 형식적인 대청결운동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군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군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집앞, 내 점포앞은 직접 청소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발대식이후 읍·면별, 마을별, 어촌계별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상금과 사업 우선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급 제도로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매주 화요일 오전 ‘내 집앞 내 점포앞 깨끗이 청소하기’와 매주 셋째주 금요일 마을별 소재지, 해변, 하천 등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환경 지킴이와 17관·1단체 담당제, 도서지역 생활 폐기물 수거, 사계절 맞춤형 청소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대대적인 ‘진도 환경 클린운동’을 시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에서 처음 열리는 전라남도민체전을 준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진도 환경 클린운동’을 전 군민운동으로 연중 추진하겠다”며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저소득층 1000세대 가스시설 개선

해남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올해 저소득층 1000세대에 2억2500만원(국비 80%, 군비 20%)을 투자해 무료로 LPG 고부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가스 개선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9년 LPG 고부호스의 노화 등에 의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호스로 설치된 모든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무화하는 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올 연말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4259세대의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바 있다. 올해 무료 교체사업을 원하는 세대는 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61-530-5877) /해남=박희석기자 dia@

대신산업 장학기금 1000만원 진도군 기탁

(주)대신산업(대표 하기성)이 진도군 인재육성에 써 달라며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하기성 대표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미래의 희망인 진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대신산업은 지난해 1월 500만원과 12월말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탁했다.

한편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현재 80여억원이 조성됐으며,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 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거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주월동 한양아파트

1층 / 28평 / 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가능

◆ 매매 1억2500만원

◆ 임대 3000만원/45만원(5000만원/30만원)

상가 임대

-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 ▶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 융자 2억4000만원
- ◆ 매가 4억500만원

010-8676-1900